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은경 김봄매 손영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련 의사결정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기존의 성격적 특성이 아닌 동기시스템인 조절초점을 상정하고, 조절초점이 일상생활에서 위험관련 선택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상생활 시나리오(연구 1, 2)와 정책결정 시나리오(연구 3)를 사용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이득이 조절초점과 위험선택을 매개하는지 또한 검증하였다(연구 2, 연구 3). 연구 1에서는 위험 및 이득 확률이 포함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위험확률과 이득확률을 제시한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더 위험감수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이득이 조절초점과 위험관련 의사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3에서는 긍정률과 부정률로 나뉘어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부정률에서만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도 부정률에서만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조절초점이 위험감수선택에 영향을 미치나 이것은 틀효과라는 상황적 특성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지각된 위험보다는 지각된 이득이 위험감수 선택에 더 중요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조절초점, 위험감수, 지각된 위험, 지각된 이득, 틀효과

사람들은 대개 위험을 싫어한다(Scholer, Zou, Fujita, & Higgins, 2010).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결정을 내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위험은 이익 혹은 기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이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한 선택을 한다. 이러한 위험과 이득의 경쟁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결정의 본질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Hamstra, Bolderdijk, & Veldstra, 2011).

기존 연구에서 일상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감수 여부에 대한 개인차는 주로 성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자극추구성향(Harlow & Brown, 1990;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 교신저자 : 손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262 연세대학교 위당관 407호
E-mail: ysohn@yonsei.ac.kr

Zuckerman, 1983), 타입 A성격(Carducci & Wong, 1998), 충동성(Wulfert, Safren, Brown, & Wan, 1999), Big Five 성격(Nicholson, Soane, Fenton-O’Creevy, & Willman, 2005; Olson & Suls, 2000)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은 위험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기적인 측면에서 위험행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동기시스템으로는 조절초점(Higgins, 1997)을 들 수 있다.

Higgins(1997)에 의하면, 조절초점은 사람들의 접근/회피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 시스템으로, 항상초점과 예방초점 두 가지로 나뉜다. 항상초점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양육의 욕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상적인 자기(ideal self)를 추구하며,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의 유무에 민감하다. 아울러 향상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성공과 획득에 대한 ‘접근’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공했을 경우에는 즐거움을, 실패했을 경우에는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하고 당위적 자기(ought self)를 추구하며,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의 유무에 민감하다. 또한 예방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손실이나 실패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며, 성공했을 경우에는 평안함을, 실패했을 때에는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항상초점이 이득에 민감하고 예방초점이 손실에 민감하다는 점은 위험행동에 있어서도 항상초점의 사람들과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초점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Crowe & Higgins, 1997). 반대로 위험은 곧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손실을 싫어하는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특성은 위험과 이득이 경쟁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이득과 위험을 지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일한 위험과 이득이 존재할지라도 항상초점의 사람들은 이득을 크게 지각하고 위험을 낮게 지각할 수 있으며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손실, 즉 위험을 크게 지각하고 이득을 낮게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Bryant와 Dunford(2008)의 지적처럼,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예방

초점의 사람들에 비해 이득을 쫓아 위험감수 선택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항상초점이 위험감수선택이나 이득을 크게 지각할 가능성은 낙관주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낙관주의는 예방초점이 아닌 항상초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nt & Higgins, 2003). 낙관주의가 상황의 긍정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Sechrist, 2010)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낙관주의가 높다는 것은 항상초점 사람들이 상황의 이득을 더 크게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Hamstra, Bollerdiijk, 및 Veldstra(2011)는 운전자들의 운전행동을 2개월간 추적조사한 연구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실제로 좀 더 속도위반을 더 많이 하고 차간간격을 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초점이 위험행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까지는 상기한 Hamstra, 등(2011)의 연구와 일부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Scholer, Zou, Fujita, Stroessner, & Higgins, 2010) 이외에는 조절초점과 위험선택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으로, 기존 논문들은 주로 신호탐지이론의 관점(Crowe & Higgins, 1997; Scholer, Stroessner, & Higgins, 2008)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투자 및 운전영역이외의 영역에서도 조절초점이 위험관련 선택을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ernbach, Darlow, 그리고 Sloman(2011)이 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했던 대표적 의사결정 영역인 일상적인 의사결정(연구 1, 2)과 정책결정 영역(연구 3)에서도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즉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더 위험감수선택(혹은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더 위험회피 선택)을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¹⁾

1)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항상초점과 예방초점은 같은 대상 혹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면(이득 혹은 손실)에 집중하게 하는 동기체계이다. 따라서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위험감수를 한다는 것은 곧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위험회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간결성을 위해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위험감수를 한다는 문장 하나로만 표현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은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위험회피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아울러 조절초점의 이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이득/손실 지각의 개인차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위험이나 지각된 이득이 조절초점과 위험관련 선택을 실제로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항상초점의 사람들은 예방초점의 사람들보다 이득을 더 크게 지각하고 위험을 낮게 지각하여 위험감수 선택을 할 것이며, 반대로 예방초점의 사람들은 위험을 크게 지각하고 이득을 낮게 지각하여 안전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연구 1

Slattery와 Ganster(2002)는 전망이론(Kahneman & Tversky, 1979)을 포함한 기존의 위험행동 관련 연구들이 대개 명확한 확률이 제시된 상황에서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다소 인위적인 상황이므로 명확한 확률이 제시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이득확률과 위험확률이 제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조절초점의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129명의 학부생들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의 문항에 같은 값을 적거나 반응을 하지 않은 3명의 자료를 제외한 126명의 자료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남성 54명, 여성 71명, 평균연령 만 20세).

연구 도구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로는 Gambetti와 Giusberti(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시나리오는 위험요소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모두 존재하여 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는 1개의 예제와 7개의 일상생활 위험선택 시나리오(속도제한, 퇴근후 회식, 상사와의 대립, 감염후출근, 이직여부, 자동차연료, 동료와의 대화)로 구성되었으며 시나리오는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시나리오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60~.65였으며, 시나리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속도제한: 당신은 오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요한 업무 약속에 늦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시속 60Km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는 공사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거리는 밝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할지, 아니면 제한속도를 지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종속변인으로는 총 3개가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위험감수선택으로, 위험한 선택과 안전한 선택(위의 예에서는 과속을 한다와 제한속도를 지킨다)을 양끝으로 한 양방향 5점식, 총 10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즉 위험선택을 하는 선택에 대해 얼마나 확실하는지에 대해서 1점은 '매우 불확실하다'이며 5점은 '매우 확실하다'이다. 반대로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험확률이 50%로 고정되어 있을 때, 위험감수 선택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득확률(Minimum benefit for risk taking, 이하 MBRT)과, 반대로 이득확률이 50%로 고정되어 있을 때 위험감수 선택을 할 최대 위험확률(Maximum risk for risk taking, 이하 MRRT)을 적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예에 있어서 MBRT는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50%라면, 과속을 했을 때 약속시간 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___% 이상 되어야 나는 과속을 할 것이다"이다. 이 경우 참가자가 기입한 값이 낮을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위의 예에 있어서 MRRT는 "속도제한을 어기고 과속을 했을 때 약속시간 내에 도착할 가능성이 50%일 때, 과속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___% 이하여야 나는 과속을 할 것이다"이다. 이 경우 참가자가 기입한 값이 높을수록 위험감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조절초점

참가자의 만성적 조절초점은 Higgins, Friedman,

Harlow, Chen Idson, Ayduk, 및 Taylor(2001)가 개발한 조절초점 질문지(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이하 RFQ)를 사용하였다. RFQ는 총 11문항으로(항상 관련 6문항, 예방관련 5문항), 개인의 항상관련 성공경험(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과 예방관련 성공경험(예, “나는 충분히 주의하지 않아서 곤경에 빠진 적이 있다”: 역코딩)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높을수록 항상 혹은 예방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64였다.

연구 절차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먼저 지시문과 실험관련 권리 안내문을 읽은 후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인의 기질적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설문지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작성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사후설명서를 통해 실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산하였다.

분석 방법

위험선택에 대한 확신도는 위험한 선택을 가장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1, 안전한 선택을 가장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10이 되도록 변환하여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개인의 만성적 조절초점 점수는 RFQ 항상초점 점수에서 예방초점 점수를 뺀 점수가 사용되었다(Higgins et al. 2001; Hong, & Lee, 2008; Joseph, Grant, & Higgins, 2004). 이 값이 높을수록 항상초점이 강하고 -값으로 갈수록 예방초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결과 및 논의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에서의 선택확신도, 위험감수를 위한 최소이득확률, 위험감수를 위한 최대위험확률, 개인의 기질적 조절초점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1을 살펴보면, 개인의 조절초점이 항상초점수록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확신도가 높고, $r = -.23$, 위험한 선택을 하기 위한 최소이득 확률이 작고, $r = -.27$, 위험한 선택을 하기 위한 최대위험 확률은 높은 것, $r = .22$,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험감수 행동과 항상초점(혹은 안전한 선택과 예방초점)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1에서는 개인이 조절초점이 일상적인 위험선택 상황에서의 위험감수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상초점이 강할수록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이 지각하는 이득과 위험의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이득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항상초점의 사람들은 상황의 위험을 적게 평가하거나 혹은 위험감수 후 얻을 이득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손실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예방초점 사람들은 상황의 위험을 크게 평가하거나 혹은 위험감수 얻을 이득을 적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실제로 시나리오 내에 이득확률과 위험확률을 모두 제시하여 개인의 조절초점에 따라 시나리오 내에 제시된 이득과 손실을 다르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위험감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1. 일상적 위험선택 시나리오에서의 선택확신도, MBRT, MRRT, 기질적 조절초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변인	M	SD	1	2	3	4
1. 선택에 대한 확신도	5.33	1.05				
2. 위험감수를 위한 최소이득확률 (MBRT)	66.45	12.56	.24**			
3. 위험감수를 위한 최대위험확률 (MRRT)	30.65	11.99	-.23**	-.74**		
4. 기질적 조절초점	0.15	1.25	-.23**	-.27**	.22*	

* $p < .05$, ** $p < .01$

연구 2

연구 2는 항상초점 성향과 위험감수 성향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1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지각된 손실 혹은 지각된 이득이 조절초점과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항상초점이 강할수록 이득을 크게 지각하고 위험은 낮게 지각하여(반대로 예방초점이 강할수록 이득은 낮게 지각하고 위험은 크게 지각하여), 이러한 주관적 지각이 조절초점과 위험관련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92명의 학부생들(남성 37명, 여성 55명, 평균연령 21세)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연구 도구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는 연구 1에서 사용된 시나리오가 사용되었다. 단, 연구 1에서와는 달리 각 시나리오에는 이득확률과 위험확률이 %로 제시되었다. 선택에 대한 확신도 또한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평

가되었으며, 시나리오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53~.59였다.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위험

참가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험확률과 이득확률을 평가하기 위해서 Kluger, Stephen, Ganzach, 및 Herchkovits(2004)가 사용한 감각통합매칭법(cross-modality match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참가자는 제시된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원으로 표시하였으며 점선을 따라 그리는 곡선이 커질수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작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온전한 원을 그린다면 확률이 100%라는 것을 의미한다. 두 명의 평정자가 자료의 10%에 대해 각도를 측정하였을 때 완벽한 일치율을 보였으므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한 명의 평정자가 측정하였다.

조절초점

참가자의 만성적 조절초점은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72였다.

연구 절차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실험관련 권리 안내문을 읽고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일상적 위험선택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위험을 표시하였으며 이후 개인의 기질적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설문지 및 인구통계학적 문항

과속을 했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 60%를 표시하세요.

가능성(%)에 해당하는 만큼 점선을 따라서 곡선을 그리세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만큼 화살표 방향(시계방향)으로 점선을 따라 곡선을 그리세요. 곡선이 커질 수록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시작점은 가능성 0%를 의미하고, 시작점으로 부터 한 바퀴 돌아서 온전한 원을 그린다면 가능성 100%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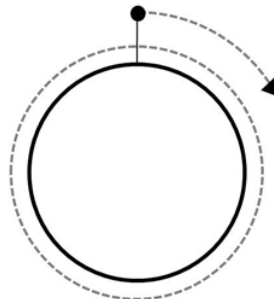


그림 1. 감각통합매칭법을 이용한 지각된 이득 및 위험 표시 자극의 예

표 2 일상적 위험선택 시나리오에서의 선택확신도, 지각된 위험 및 이득확률, 기질적 조절초점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

변인	M	SD	1	2	3	4
1. 선택에 대한 확신도	5.48	1.25				
2. 지각된 위험확률	115.30	19.36	.12			
3. 지각된 이득확률	119.10	23.94	-.34**	.29**		
4. 기질적 조절초점	-0.6	1.34	-.30**	-.01	.27**	

** $p < .01$

을 작성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사후설명서를 통해 실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산하였다.

결과 및 논의

위험회피 선택에 대한 확신도, 지각된 위험, 지각된 이득, 그리고 개인의 기질적 조절초점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값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를 살펴보면, 항상초점이 강한 사람일수록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r = -.30$, 연구 1의 결과가 다시 확인되었다. 또한 항상초점이 강할수록 이득을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r = .27$, 지각된 위험은 개인의 조절초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r = -.01$.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이득이 개인의 조절초점과 위험선택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각 회귀식은 지각된 이득이 개인의 조절초점과 위험관련 의사결정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회귀식의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Sobel 검증에서도 유의미하여, $Z = -1.99$, $p < .05$, 항상초점이 높을수록 상황의 이득을 높게 지각하고 이것이 위험감수 선택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위험확률과 이득확률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던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더 위험감수 선택을 하였다. 아울러 지각된 위험보다는 지각된 이득에서 개인차가 분명하게 관찰되었고 매개분석에서도 지각된 이득이 개인의 조절초점과 위험감수 선택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상초점의 사람들은 예방초점의 사람들보다 좀 더 위험감수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것은 위험 지각의 차이가 아니라 이득 지각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항상초점의 사람들이 이득을 더 높게(혹은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이득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이 위험선택의 개인차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연구 3에서는 정책결정 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하였으며, 위험감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틀효과(Kahneman & Tver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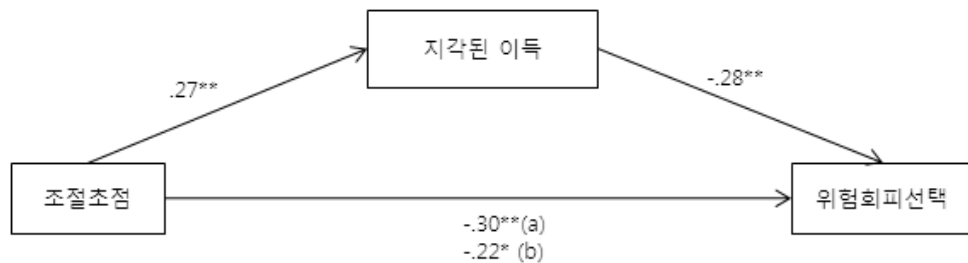


그림 2. 일상적 위험선택 시나리오에서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 (a) 지각된 이득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에서의 β 값. (b) 지각된 이득이 포함된 회귀식에서의 β 값. (* $p < .05$, ** $p < .01$).

1984)가 있는 상황에서도 조절초점과 위험감수선택간의 관계가 여전히 관찰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틀효과라는 강력한 상황적 변수가 존재할 때에도 개인차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연구 3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 2에서 나타난 이득의 매개효과가 이득을 강조하는 긍정들이나 위험을 강조하는 부정들 모두에서 나타나지도 살펴볼 것인데, 만일 틀에 따라 이득의 매개효과가 달라진다면, 연구 2에서 관찰된 이득의 매개효과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연구 3

연구 3은 연구 1과 2에서 나타난 개인의 조절초점이 위험감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이득을 강조하는 틀과 위험(손실)을 강조하는 틀 모두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2의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위험지각은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만 이득지각에서는 조절초점의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는 ‘가변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득을 강조하는 긍정들에서 이득의 가변성이 더 크게 일어날지 또는 위험을 강조하는 부정들에서 이득의 가변성이 더 크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뚜렷한 이론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구 3은 뚜렷한 방향성에 대한 가설은 없이 조절초점이라는 개인차가 틀조작이라는 상황적 변수를 뛰어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설계되었다. 아울러 연구 2에서 관찰된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가 각 틀 조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152명의 학부생들(남성 69명, 여성 83명, 평균연령 21세)이 수업의 선택사항으로 실험에 참가하였다.

연구 도구

정책결정 과제

위험이 포함된 정책결정 과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들을 참조하여(Connolly & Reb, 2003; Wroe, Bhan, Salkovskis, & Bedford, 2005) 연구자들이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각 시나리오는 분명한 위험 확률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는 경제 및 건강 영역 시나리오이며, 각 시나리오의 이슈는 문화마을, 백신정책, 루나강사업, 조기수입으로, 1개의 예제를 포함하여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시나리오의 예(긍정들 조건)는 다음과 같다.

문화마을: 정부에서는 지방의 A 시를 문화마을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이 나면 관련된 법과 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문화마을 사업으로 인해 A 시의 시민 중 일부의 가계경제 상황은 더욱 좋아지지만 일부 주민의 가계경제 상황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화마을 사업으로 A 시의 가구 10,000 가구 중 7,000 가구의 가계경제 상황은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위의 문화마을 정책 담당자 중 한 명이라면 이 정책에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들 조건은 “A 시의 가구 10,000 가구 중 3,000 가구의 가계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로 바뀌는 것 이외에는 모든 내용이 동일하였다. 선택에 대한 확신도 또한 연구 1, 연구 2와 마찬가지로 평가되었다. 시나리오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51~.64 사이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위험

연구 3에서는 연구 2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각된 이득과 위험을 평가하였다. 연구 2의 감각통합매칭법이 제시된 확률을 선으로 표현하는 다소 암묵적인 방식의 이득 및 위험 평가이므로 연구 3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위험도와 이득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지각된 위험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지각된 이득에 대해서는 “당신은 이 정책이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고 이를 10점 척도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혹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초점

참가자의 만성적 조절초점은 연구 1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값은 .60이었다.

연구 절차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긍정틀 조건과 부정틀 조건에 무선으로 배치되었다. 이후의 절차는 연구 2와 동일하다.

결과 및 논의

틀조건에 따른 변인들의 기술통계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조절초점과 틀이 위험감수 성향을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조절초점, 틀(1: 긍정틀, -1: 부정틀), 조절초점과 틀의 상호작용항을 동시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절초점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beta = -.16$, $t = -2.32$, $p < .05$, 항상초점이 강할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보였다. 또한 틀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여, $\beta = -1.78$, $t = -3.63$, $p < .001$, 예상대로 긍정적인 틀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위험감수 성향을 보였다. 아울러 조절초점과 틀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는데, $\beta = -1.27$, $t = 2.61$, $p < .05$, 조절초점의 효과가 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3을 살펴보면, 긍정틀에서는 조절초점의 효과가 없으나 부정틀에서는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위험회피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틀과 조절초점의 상호작용 효과가 관찰되었으므로,

표 3. 정책결정 시나리오에서 각 틀별로 나타난 선택확신도, 지각된 위험 및 이득, 기질적 조절초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긍정틀		부정틀	
	M	SD	M	SD
1. 선택에 대한 확신도	5.15	1.58	7.12	1.60
2. 지각된 위험	6.14	1.19	7.00	1.17
3. 지각된 이득	5.94	1.02	4.72	1.37
4. 기질적 조절초점	0.59	1.42	0.34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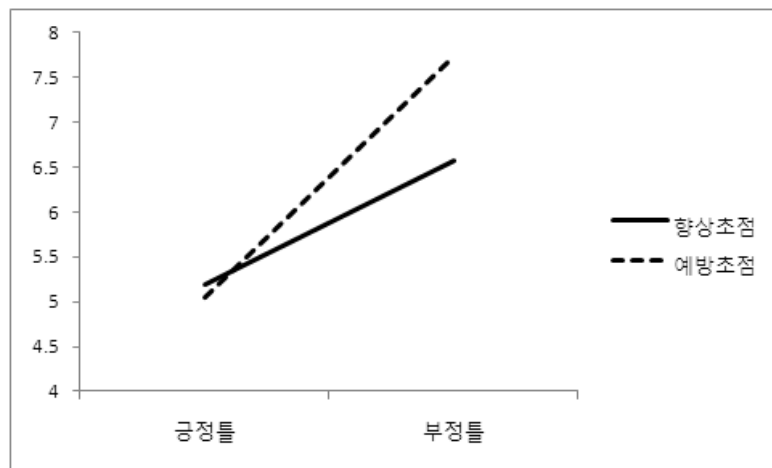


그림 3. 정책결정 시나리오에 있어서 위험감수 성향에 대한 조절초점과 틀의 상호작용효과(Y축의 값이 높을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높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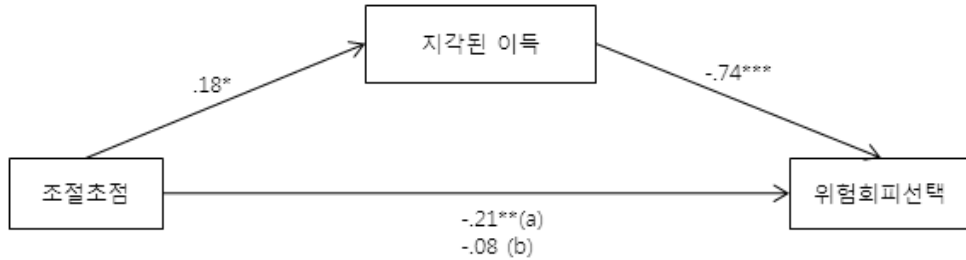


그림 4. 정책결정 시나리오에서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 (a) 지각된 이득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에서의 β 값. (b) 지각된 이득이 포함된 회귀식에서의 β 값. (* $p < .05$, ** $p < .01$, *** $p < .001$).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 검증 역시 틀 조건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우선 긍정들에서는 지각된 이득과 지각된 위험 모두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부정들에서는 연구 2의 결과와 일관되게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가 관찰되었다. 각 회귀식의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Sobel 검증에서도 유의미하여, $Z = -2.38$, $p < .05$, 항상초점이 강할수록 상황의 이득을 높게 지각하고(또는 예방초점이 강할수록 상황의 이득을 낮게 지각하고) 이것이 위험감수 선택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한 연구 3의 결과는 조절초점의 효과가 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득을 강조하는 긍정들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부정들에서는 조절초점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3을 살펴보면, 항상초점의 사람들보다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틀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위험 및 이득의 매개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연구 2와 마찬가지로 지각된 위험은 모든 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각된 이득만이 긍정들에서 조절초점과 위험감수성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감수성향의 개인차는 이득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의 개인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지각된 이득의 개인차는 이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상당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대인관계, 건강, 법규준수 등이 포함된 일상적인 의사결정 상황과 정책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조절초점이 위험감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각된 이득 혹은 지각된 위험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예상대로 예방초점이 강한 사람들보다는 항상초점이 강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조절초점의 효과는 자연스러운 상황(연구 1)이나 이득과 위험 확률 모두가 인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연구 2)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위험 확률이 제시되어 위험이 강조된 상황에서도 개인의 조절초점의 효과는 관찰되었으나 이득 확률이 제시되어 이득이 강조된 상황에서는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연구 3). 이러한 틀효과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개인의 조절초점의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기는 하지만, 맥락적 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처럼 이득과 위험 확률이 모두 제시되지 않는 모호한 상황(그리고 반대로 모두 정확하게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이득보다는 위험 가능성에 더 점화되기 쉽다는 점이다. 조절초점 효과가 긍정들에서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들(위험강조 상황)이 이득과 위험 확률이 모두 제시되는 상황, 그리고 둘 다 제시되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Rozin, & Royzman, 2001; Vaish, Grossmann, & Woodward, 2008)의 맥락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부정성 편향에 의해 사람들은 이득과 위험 정보가 모두 공평하게 있음에도(혹은 모두 없음에도) 위험 정보를 강조한 것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 이득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해야만 점화가 되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 3에서 긍정점에서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향상초점의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감수성향을 보인 것은 부정성 편향에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반대로 향상초점의 사람들은 부정성 편향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속성 자체에서 유발된 현상일 수 있는데, 향상초점은 성장과 이상이라는 비교적 내적동기 속성에 가까운 동기라면 예방초점은 의무와 경계라는 상황특정적 요소에서 출발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틀 변화와 같은 상황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만, 위험감수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추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 2와 연구 3에서는 조절초점과 위험관련 의사결정간의 관계 기저에 있는 기제로써 지각된 위험과 이득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이득만이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연구 3에서는 역시 부정점에서만 관찰됨)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각된 이득의 매개효과만이 나타난 것은 사람들은 위험에 대해서는 개인특성과 관계없이 상당히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을 하며, 따라서 위험감수 결정에 중요한 것은 이득지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방초점의 사람들이 향상초점의 사람들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향상초점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크게 지각해서가 아니라 이득을 낮게 지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차가 위험지각보다는 이득지각에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은 기존의 성격과 위험선택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 결과(Soane, Dewberry, & Narendran, 2010)에서도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 Soane 등(2010)은 성격과 위험관련 선택간의 관계를 지각된 손실과 이득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각된 손실에 비해 지각된 이득이 좀 더 일관된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각된 이득이 위험관련 선택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지각된 이득에만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간접적인 증거는 권력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의 권력 연구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은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하나 이득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Anderson & Galinsky, 2006). 이와 함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향상초점을 높게 보인다는 연구결과(Keltner, Gruenfeld, & Anderson, 2003)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 결과, 즉 위험지각에서는 조절초점의 효과가 별로 없지만 향상초점을 지닌 사람들은 예방초점 사람들에 비해 이득을 더 크게 지각할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박 상황에서의 손실혐오 현상과 뇌신경학적 변화를 관찰한 연구에서도 예상과는 달리 손실혐오 현상이 손실뿐 아니라 이득과 관련된 뇌영역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어(Sabrina, Fox, Trepel, & Poldrack, 2007) 위험관련 행동에 이득확률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위험보다 이득 지각에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득보다 위험 혹은 손실이 좀 더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손실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Scholer, et al., 2010), 현재보다 나아지는 것(이득)보다는 훨씬 사람들에게 생존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존과 관련된 손실 혹은 위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득은 이러한 고정된 위험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 이득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개인차가 위험관련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았던, 대인관계나 건강 등과 같은 일상적 의사결정 상황과 정책결정에서도 조절초점이 위험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특정 조건을 밝혔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조절초점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조절초점은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위험행동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성격 연구에서도 잘 연구되지 않았던(Katz, Fromme, & D'Amico, 2000) 위험관련 선택을 유발하는 기제로써 지각된 이득의 역할을 발견한 것도 새로운 발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지각의 안정성과 이득지각의 개인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영역과 방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우선 성격이나 자기 효능감같이 위험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적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성격 등이 위험감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조절초점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시나리오에 대해 반응한 후 지연시간 없이 만성적 조절초점 설문에 답을 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자체에 의한 영향으로 조절초점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절초점을 조작하거나 과제후 충분한 지연시간을 확보한 후 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연구 설계를 통해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험연구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이득 및 위험 확률이 포함된 상황과 포함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는 이러한 과제제시 방법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 Slattery와 Ganster(2002)가 사용했던 경영적 의사결정과제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가 보다 단순한 시나리오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 복잡한 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nderson, C., & Galinsky, A. D. (2006) Power, optimism, and risk-tak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6*, 511-536.
- Connolly, T., & Reb, J. (2003). Omission bias in vaccination decisions: Where's the "omission"? Where's the "bia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1*, 186-202.
-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 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 117-132.
- Gambetti, E., & Giusberti, F. (2009) Dispositional anger and risk decision-making. *Mind and Society, 8*, 7-20.
- Grant, H., & Higgins, E.T. (2003) Optimism, Promotion Pride, and Prevention Pride as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521-1532.
- Hamstra, M. R. W., Bolderdijk, J. W., & Veldstra, J. L. (in press) Everyday risk taking as a function of regulatory focu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 1280-1300.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s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hneman, D., & Tversky, A. (1984) "Choices, values and frames". *American Psychologist, 39*, 341-350.
- Katz, E., Fromme, K., & D'Amico, E. (2000) Effects of outcome expectancies and personality on young adults' illicit drug use, heavy drinking, and risky sexual behavio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 1-22.
- Keltner, D., Gruenfeld, D. H. & Anderson, C. (2003)

- Power, Approach, and Inhibition, *Psychological Review*, 110, 265-284.
- Kluger, A. N., Stephan, E., Ganzach, Y., & HersHKovitz, M. (2004)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the Shape of Probability-weighting Function: Evidence from a Cross-Modality Matching Metho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95, 20-39.
- Nicholson, N., Soane, E., Fenton-O'Creevy, M., & Willman, P. (2005). Personality and domain-specific risk 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8, 157-176.
- Olson, B. D., & Suls, J. (2000). Self-, other-, and ideal-judgments of risk and caution as a func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425-436.
- Rozin, P., & Royzman, E. B. (2001)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96-320.
- Scholer, A. A., Zou, X., Fujita, K., Stroessner, S. J., Higgins, E. T. (2010) When risk-seeking becomes a motivational necess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215-231.
- Sechrist, G. B. (2010) Making Attributions to and Plans to Confront Gender Discrimination: The Role of Optimism.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 1678-1707.
- Slattery, J. P., & Ganster, D. C. (2002) Determinants of risk taking in a dynamic uncertain context *Journal of Management*, 28, 89-106.
- Tom, S. M., Fox, C. R., Trepel, C., & Poldrack, R. A. (2007) The Neural Basis of Loss Aversion in Decision-Making Under Risk. *Science*, 315, 515-518.
- Vaish, A., Grossmann, T., & Woodward, A. (2008). Not All Emotions Are Created Equal: The Negativity Bias in Social-Emotional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34, 383-403.
- Weber, E. U., Blais, A.-R., & Betz, N. (2002) A domain-specific risk-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 263-290.
- Wroe, A. L., Bhan, A., Salkovskis, P., & Bedford, H. (2005). Feeling bad about immunising our children. *Vaccine*, 23, 1428-1433.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n Risk Taking: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Gains

EunKyoung Chung Bomme Kim Young Woo Soh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 taking and provide empirical testing of the role of regulatory focus on risk taking. Everyday risk taking task included both (a) natural scenarios without explicit probabilities of risk and gains (Study 1) and (b) scenarios with them (Study 2). The findings of Studies 1 and 2 showed that chronic regulatory focus has influence on everyday risk taking. Specifically, risk taking occurred under promotion focus, whereas risk aversion occurred under prevention focus. In addition, the perceived gain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risk taking related decision. However, the perceived risk was found to have no mediating effect on regulatory focus and risk taking related decision. Study 3 using policy scenarios supported the findings of Studies 1 and 2 except that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occurred only in the negative frame. Our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risk taking can be explained by the regulatory focus theory and risk taking can be influenced by different gain perception, but not risk perception. However,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can be moderated by framing effect.

Keywords: regulatory focus, risk taking, perceived risk, perceived gains, framing effect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3월 1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2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27일